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특허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심사관과 선행기술조사원이 동일한 검색환경을 이용하여 선행기술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심사관용 특허검색시스템을 선행기술조사기관에 1월부터 전면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특허청과 선행기술조사기관의 검색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과 데이터 범위 등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검색환경 제공이 절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전산자원을 확충하고 최신의 검색엔진을 도입하는 등 검색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선행기술조사기관도 특허청 심사관과 동일한 검색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특허청의 검색시스템은 심사관들의 검색 노하우가 집약된 다양한 검색기능을 갖추고 있고, 표준기술 및 폭넓은 국내·외 지식재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선행기술조사기관도 전문적이고 정밀한 검색을 수행하는 심사관과 동등한 수준의 검색이 가능해지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선행기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심사단계에서 신속·정확한 심사가 가능해져 심사처리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등록받은 권리범위가 쉽게 무효화되지 않는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으며, 강한특허 창출은 튼튼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해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규완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앞으로 심사관과 선행기술조사원의 기능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선행기술조사 업무 효율화 및 품질 강화를 통한 강한특허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외부 선행기술조사기관 심사관용 검색시스템 개방 현황

외부 선행기술조사기관 심사관용 검색시스템 개방 현황

□ 심사관용 검색시스템 개방 개요

- (목적) 조사업무 효율화 및 심사협력형 조사 확대를 위해 선행기술조사기관에 심사관용 특실검색시스템 개방
- (추진경과) 관련과와 정보관리과의 협조를 통해 개방 완료
 - 심사지원 사업의 재창조 발전 방안 사전 논의 후 청장 보고('14.3월)
 - * 「심사지원 사업의 재창조 발전 방안 보고」 ('14.3, 특허심사기획과)
 - 발전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지원 사업 정보화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후속 전산자원 도입사업 추진('14.3월)
 - * 「정보화 종합지원 계획 및 차세대 검색엔진 도입사업 계획 수립」 ('14.3, 정보관리과)
 - 신규 전산자원에 심사관용과 동일한 검색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용자 테스트(11~12월) 후 외부 선행기술조사기관에 개방('15.1월)
 - * 심사관 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별도의 전산자원을 통해 외부에 제공
- (효과) 선행기술조사업무 효율화 및 조사품질 향상
 - 동일한 검색시스템 사용으로 조사보고서 내 검색식 재활용과 같은 심사관·조사원 간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심사업무 효율성 향상
 - 신규·소규모 선행기술조사기관의 경우 청의 방대한 해외특허 DB 및 편의기능이 갖춰진 검색시스템 활용으로 조사품질 향상 지원

□ 조사기관별 수행 현황

○ (수행인원 현황)

	특실(협력형)	PCT	IPC분류	합계
특허정보진흥센터	105명	114명	28명	247명
(주)웍스	15명	37명	-	104명
KTG	-	20명	-	31명
IP솔루션	4명	-	-	11명
합계	124명	171명	28명	393명

* 서면형 조사원을 제외하곤 1인 1클라우드PC를 보유하나 물리PC는 공용으로 사용하기도 함